

## 13강 상연

### 무대 공포

- 무대를 오르기 전 여러 두려움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에 섰을 때 그 공포가 드러나 배우들을 쇠약해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 어떻게 공포를 피할 수 있을까? 먼저 어느 정도의 긴장은 피할 수 없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는다든 두려움은 우리를 소극적이고 둔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공연을 망쳤다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공연 중에 더 잘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 교실 상연

- 임시 무대인만큼 무엇이 어디 위치에 놓이는지, 소도구들의대용품으로는 무엇을 쓸 것인지 등을 설정하라. 그리고 각자 시작하는 위치로 가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준비란 다음과 같다.
  1. 팔을 흔든다거나, 발길질을 한다거나, 전신을 구부린다거나, 주먹으로 손바닥을 세게 치는 등의 동작으로 간단히 몸을 푼다.
  2. 당신의 상대에게서 가장 매력적이거나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빨리 알아본다.
  3. 장면의 상황에서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지 잠깐 생각한다. 당신의 등장인물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4. 장면의 상황에서 무엇이 당신을 겁나게 하는지 잠깐 생각한다. 당신의 등장인물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인가?
  5.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GOTE**를 점검한다. “나는 그에게 저런 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획득할 거야. 그래고 난 그걸 지금 당장 획득할거야!
- 이 준비들을 함으로 나의 캐릭터와 등장인물에 몰입을 해서 관객을 잊게 해줌으로 더 깊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할수록 관객을 덜 의식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사실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생각할수록 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실제상황같은 극을 창조해낼 수 있다.

### 결과를 위한 연기-다른 등장인물 속으로!

1. 관객이 보게 되는 결과: 무대장치, 조명, 연출, 배우, 리허설
  2. 관객이 아닌 배우들이 보게 되는 결과: 관객이 아닌 상대배우에게서 얻어내는 것.
- 실제 공연 리허설을 할 때 폭력적인 장면이나 성적인 접근은 상대배우와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한다.
  - 연기 수업에서는 자신이 리허설이나 공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실험을 해보는 곳이다.
  - 연기 수업에서의 상연 때는 나와 상대방의 연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 장면을 망쳤다고 상대배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 연기 수업에서의 상연 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자.
    1. 내가 집중했나?
    2. 목표를 추구했나?
    3. 감동시켰나?
    4. 그(상대배우)를 놀라게 했나? 그렇지 않다면, 왜 그랬는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연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 수업에서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나의 연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 14강 평가와 개선

### 유익한 비평

- 좋은 글이 수정을 여러번 거쳐 만들어지듯이 연기도 그러하다. 비평을 연기를 다듬는 도구이다.
- 그런데 비평을 듣고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두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아마 훌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비평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 비평으로 발전하는 단계
  1. 비평을 단순히 경청하라.  
그것이 극을 같이 준비했던 사람이 아닌 관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제시된 개선 방법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 비평의 타당성은 수용하라.
  2. 비평을 들을 때,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라.  
그들은 무엇을 싫어했는가? 그들은 이야기를 이해했는가? 관계는? 그들은 들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관심을 가졌는가? 관객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많은 배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객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관객이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다.
- 나의 연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일반적인 비평들
  - 표시와 도취: 초보 배우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 액션보다는 감정의 연기와 관련이 있다.
    1. 표시: 감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을 파악한 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감정으로 연기를 해야한다.
    2. 도취: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으로 감정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문제는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등장인물의 상태나 감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와 등장인물들의 **GOTE**를 파악하고 실재 전술들을 사용하여 실재 목표들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나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 몇 가지 비평들 그리고 해결 방법
  1. 그 장면은 지루했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실패한 것. 나의 선택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장면에 성적 또는 위협적 가능성이 잠재하는지 검토해보자. 그리고 나의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자. 나의 전술들을 강화하고, 승리와 패배에 대해 더 강렬하게 상상하라.
  2. 잘 안들렸어!  
이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관객에게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장면을 배치하는 것과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이다. 발성은 배우에게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은 배우로서 나의 책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책무이다.
  3. 훌륭했어!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비평이다. 훌륭한 배우는 매우 적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칭찬을 더 잘 하라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라는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좋은 의도이든 진심이든 간에 나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칭찬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

### 재작업

- 연기와 장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나면 나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집중하려는 목적에서 리허설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진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구분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작업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 바로 만족을 주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비평받은 부분을 찾아내고 고치는 방법이 좋다.
-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명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그 장면, 모든 상대를, 모든 배역을 최고로 만드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고 또 나의 몫이기도 하다.